

생명의 말씀

경배의 대상 예수님

(히 1:4~14)



송용필 목사
· KAICAM 고문

사회개혁가이자 유명한 화가인 존 러스킨이 어떤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러스킨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어떤 부인이 울상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녀에게 선물 받은 귀중한 스카프에 잉크가 묻고 말았지 뭐예요. 아이들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보기도 흉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무슨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까. 부인, 잠시만 스카프를 빌려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연회장의 구석으로 가서 펜과 잉크를

부탁해 스카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스카프의 얼룩은 나무와 새의 일부분이 되었고, 러스킨의 그림으로 인해 스카프는 훨씬 더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잉크의 얼룩이 아름다운 무늬가 되듯이 우리의 약점과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선한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선행 조건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에는 천사들과 그리스도에 대한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천사에 대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이해해야 하는데 오늘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우리는 잘못된 숭배에 대한 세 가지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는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대상이

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를 매우 존경하고 받드는 자세를 보였고, 중세시대에는 천사를 섬기는 기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신약에도 천사와 교통한다고 속여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의 종인 영적 존재이고 숭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만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십시오. 마 19:17)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국내에도 많이 퍼진 어떤 이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이 첫 번째로 창조한 피조물이며 천사와 같은 존재였다가 기쁜 부음을 받음으로 메시야로 세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했고 삼위와 일체의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창조자인 예수님은 모든 권

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 28:18) **셋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외에는 어떤 천사도, 어떤 사람도 경배를 받고 숭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1 예수, 신의 대리자를 지체하는 하향된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지 말고 오직 성경이 말하는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십시오. (막 13:32, 엡 4:6) 오늘 본문을 통해 잘못된 숭배에 대한 세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부분만 알거나, 잘못 아는 것 외에 모르는 것보다도 훨씬 위험합니다. 잘못된 교리와 사상에 사로잡히면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기는 매우 힘이 듭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바로 알고 또 바로 알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오직 진리의 길에 서서 참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주님! 오직 예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동정

이신화 대사 "北인권 너무 양보"



5년의 공식 이후 임명된 이신화 북한 인권국제협력대사가 향후 북한 인권 문제 '탈정치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사는 지난 10월 7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지난 정부가 너무 많이 양보한 것 같다. 버릇없어지고(spoilt), 대담해진(embolden)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회복해서 북한과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이 대사의 평가다.

국제종도교회, 이선 목사 취임예배



국제종도교회(대전 대덕구 비례서로 소재)는 지난 9월 25일 오후 3시 30분 본당에서 이선 목사(미국 유나이티드 신학대학교 총장)를 위임목사로 하는 취임예배를 드렸다. 이선 위임목사는 국내외 2,000교회 이상 부흥회를 인도한 부흥사로 한국교회 발전에 이바지 해오고 있다.

최도성 한동대 총장 글로벌 행보



현지 시간 지난 9월 22일부터 5일까지 미국을 방문한 최도성 한동대 총장이 뉴욕과 워싱턴DC, 샌프란시스코, LA, 달라스 등지를 순회하며 글로벌 대학으로의 비상(飛上)을 위한 분주한 행보를 이어갔다. 최 총장은 이번방미 일정 동안 킹스 칼리지 대학 등과 협력을 논의했다.

부산외대총장에 장순홍 박사 선임



부산외국어대학교는 학교법인 성지학원이 최근 이사회를 열어 장순홍 박사를 제11대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지난 10월 4일(화) 밝혔다. 장 총장은 2014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한동대 제5·6대 총장을 맡는 등 다양한 교육 경험을 지닌 대학 운영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임기는 2026년 9월 30일까지 4년이다.

논평 한국교회연론회

공영방송이 국제적 망신과 국가 원수를 음해하는가

최근 대통령에 관한 비속어 논란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등 퇴치를 위한 것) 7차 재정 공약회의에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다. 그리고 나오는 자리에서 비속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외교 참사'라느니, '외교 문제 비화가 우려된다느니' 하는 말들이 정치권과 방송을 통하여 나왔다. 정말 우리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아니 대통령이 국제회의와 국가 간 정상을 만나고 나오는 자리에서 그런(방송에서 보도한) 비속어를 사용했던 말인가? 그런데 이것이 명확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최초로 공개한 정치권과 언론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다는 여론이 팽배하여 국민들을 또다시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다. MBC의 잘못이 명백함을 이를 최초로 보도한 MBC에 속한 제3노동조합에서 24일 외

교 참사 부당한 보도에 누가 책임질 것인가? 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 성명서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느끼게 재생해 보면 이를 '국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바이든이' 라고 단정해 보도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MBC는 미국어라는 것에도 않은 단어까지 자막으로 넣어 방송했다. 한미 정상이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에 보도 참사를 일으킨 것이다'라고 성명하였다. MBC가 앞장서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리 전 문기들도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MBC가 아무리 '노영방송' '편파방송' '좌파방송'이라는 비난을 듣고 있어도, 취재에는 기본적인 윤리가 있는 것이다. 적어도 해외에 나가 국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을 방송할 때는 정식으로 인터뷰를 하되, 편마이크를 잡고, 20cm 이내에서 정확히 녹음한 것을 사용

한다고 한다. 그런데 MBC는 지나가는 대통령이 1m 이상 떨어졌고 편마이크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주변이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상태에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카메라에 찍는 것에 의도 없이 많은 단어들을 자막으로 넣어 사용했다는 것은 방송 언론이 아니라, '피파리치' 수준도 안 된다. MBC는 한국의 공영방송이다. 아무리 방송이 현대통령에 대하여 어떤과 저고 공지에 몰아넣으려고 해도 분명한 근거와 사실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정확하지도 않은 내용을 자막까지 넣어 선동하고, 학습효과를 통하여 공론화하려 한 것은 방송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는 악보(惡報)라고 본다. 이에 대하여 MBC 제3노조는 관련자들에게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찌 같은 언론인, 같은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보도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가? 이것이 정말 한국 언론의 수준이란 말인가? '악마 편집'은 스스로를 격하시키는 것이고, 종래에는 MBC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마치 '양치기 소년' 처럼 되고 말 것이다. MBC는 국민의 자신인 전파를 사용하는 공영 언론이다. 앞으로 취재 윤리 부재와 언론 사고의 교과서(?)로 이번의 MBC 보도가 사용될 것이다. MBC의 이런 보도 태도는 우리나라 국격(國格)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외교 문제에 손상을 주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서로가 믿지 못하는 신뢰감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손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언론이 공정하고, 정확하고, 취재 윤리를 지키면서 빠르게 해야 하는 이유이다. 'MBC는 역시 MBC'이다'는 부정(否定)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목양의 산책

조예환 목사 // 갈보리교회, 한국기독교영동회 대표회장 역임

마음을 나누는 법

교회를 개척하고 아내와 둘이서 예배를 드리다가 방에서 아이가 울어 아내가 시택으로 뛰어 들어가면 혼자 남은 나는 설교를 계속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난감해졌다. 그러다 처음으로 한 노인이 새벽기도에 오셨다. 기도하시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다. 강회도 갈보리교회 권사님이신데 손자가 우리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어 손자를 반겨주러 같이 오셨고, 교회 옆 연립에서 사신다는 것이었다. 주말날은 차를 타고 다니시던 갈보리교회 가지지만, 새벽기도는 가까운 우리 교회로 나오시겠다고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의 용사를 준비해 두셨다니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개척교회 목회자의 생활을 이해하고는 늘 안타까워

해주셨고, 손자가 학교에 간 시간은 또 근처 공장에 나가 일도 하시 참으로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사시는 분이셨다. 좀 지난 후 손자가 우리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했다. 학생이 한 명 생겨 너무 좋았다.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었지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나와 아내를 좋아하고 따르니 위로 가 되고 힘이 되었다. 교회가 부흥되면서 시택도 교회 밖 연립주택으로 이사를 했다. 어느 날부터 시택 대문 앞에 생수가 2병씩 놓여있는 것이었다. 병에 하얗게 세리가 진 약수는 떠 온 이의 정성이 그대로 담겨 너무나 시원하고 달았다. 그런데 물레 두고 가서 누가 언제 가져다 두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외출하려던 나는 우연히 문 앞에 물병을 조심스레 올려두던 권사님과 딱 마주쳤다. 권사님은 어쩔 줄 몰라 하시며 그대로 도망치듯 사

라지셨다. 그 연세에 어르신이 산 위의 약수터에 올라 가서 자신의 집 것과 우리 집 약수를 길어서 메고 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정말 사랑과 섬김의 믿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목회자가 가난해 보이면 돕고, 자기보다 잘 산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헤드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목회자를 섬기고 대접함이 아니요 구제하는 자세다.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 댁에 정월에 과일 한 상자 안 들어온다는 소문은 그런 세태를 반영하는 것이다. 섬김은 감사에서 나오고 구제는 연민 때문에 행해진다. 꼭 좋은 것을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다. 추석에 토란탕을 끓여주던 권사님과 딱 마주쳤다. 좋은 그릇에 담아 쏟아질까 조심스레 가져다주시는 사

람이 있다. 나는 맛있게 그것을 먹으며 대접한 손길에 담긴 사랑이 합어졌고 저절로 축복기도가 나왔다. 목사로서 내가 가진 특별한 은사는 음식에 담긴 정성을 구별하여 내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음식을 먹을 때 정성을 함께 먹는다. 불편한 마음으로 혹은 억지로 한 음식은 목에서 넘어가지를 않거나 먹고 나서도 내내 속이 불편하다.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마음은 또 그렇게 드러나기도 한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아이날이면 나는 새벽기도를 마치고 케이션 두 송이를 들고 서울의 차가로 갔다. 차남과 처형들이 용돈도 드리고 음식 대접도 허러 올 것이니 이전에 다녀오려는 것이었다. 장인이든과 장모님께 뜻을 달아드리고, 장모님이 차려주신 아침을 함께 먹고 기도해 드리고 돌아왔다. 그때 가난한 전도사가 할 수 있는 것이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최선이었다. 믿음 안에서 장모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셨다. 가진 것이 없어 나눌 수 없고 섬길 수 없다고 생각하며 부(富)를 주기를 기도하는 삶들이 있다. 내 것이 채워지면 나누고자 하기에 평생 아무것도 나누지 못하

제주 지역 최초로 초등학생을 위한 생명나눔·존중교육 실시

"섬마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생명나눔을 심다"

"유나 누나, 누나의 장기기증 이야기를 읽고 눈물이 났어. 세상을 떠나면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한 누나는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되었을 거야." 2016년, 미국 유학 당시 장기기증으로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살린 제주 소녀 김유나 양(기증 당시 18세)의 이야기가 2022년 9월, 우도초등학교 학생들의 마음을 울렸다. 낯설지만 한 장기기증에 같은 도민이었던 김유나 양이 참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기증인을 향한 편지를 써내려갔다. (재)사람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지난 9월 28일, 제주도 우도면에 소재

한 우도초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명나눔의 가치를 알리는 생명나눔 및 존중교육 '모든 생명은 소중한'을 실시했다. 제주 지역 최초로 실시되는 초등학생을 위한 생명나눔 및 존중교육 제주 대표적 부속섬인 우도는 성산포에서 북동쪽으로 3.8km 떨어진 둘레 17km의 섬마을이다. 이곳의 유일한 초등 교육기관인 우도초등학교는 전교생 45명 규모의 작은 학교이다. 본부는 지난 2019년부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명나눔 및 존중교육을 실시해 이제까지 3만 8천여

명의 아이들에게 장기기증의 숭고한 가치와 나눔의 필요성에 대해 알려왔다. 그러나 이제까지 교육은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까지 교육의 기회가 닿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특별히 올해 하반기에는 광동제약, 대신송촌문화재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후원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협조로 교육 책자 및 영상, 교구 등을 제작하여 배포해 제주 지역 최초로 25개교 4,3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생명나눔 및 존중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9월 28일, 우도초등학교에 본부 교육 강사가 직접 방문하



여 섬마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생명나눔이라는 아름다운 가치를 심었다. 장기기증뿐 아니라 봉사활동 및 기부 등 다양한 나눔활동 배우는 기회 이날 교육에는 우도초등학교의 1, 2학년 학생 12명, 5학년 학생 8명이 참여했다. 3교시 수업 시간에는 장기기증의 과정을 심장의 여행으로 표현한 그림책

을 함께 읽으며 우리 몸속 장기의 위치 및 역할, 그리고 생명나눔의 의미 등을 학습했다. 이어진 4교시 수업에서는 자신의 심장 박동 느껴보기,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좋은 습관 약속하기 등의 활동을 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배웠다. 나아가 장기기증의 실제 사례를 만화로 읽고, 편지를 작성하며 생명나눔의 가치를 이해했다.